

영유아 사교육경감 '전문가에게 묻고 듣다' #2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번에 이어 두번째 인터뷰에도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인터뷰에 이어 유아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적절한 교육 방법과 사교육을 대신한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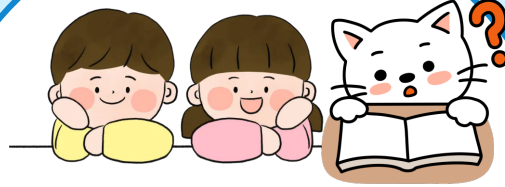


사교육이 무조건 다 나쁘고 비효과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영유아기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 시기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내용과 방식인가"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학습 중심 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대부분 영유아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외국어를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그 언어에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지식전달의 목적이 아닌,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현재 학습 사교육은 주입식, 전달식이죠. 영유아들은 직관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며 추상적·논리적 사고는 아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습 사교육은 대부분 추상적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없는 아기에게 달리기를 시키는 것과 비슷한 일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발달의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연령이여도 아이마다 발달의 속도와 방향, 기질, 흥미는 모두 다릅니다. 옆집 아이에게 효과적인 교육 내용이 우리 집 아이에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유아들의 교육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의 흥미와 호기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시도하고 깨닫는 그 짜릿한 경험이 평생 학습 동기의 뿌리가 됩니다. 외적 보상이나 부모의 압박으로 시작한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기주도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무엇에 눈을 반짝이는지를 관찰하고, 그 흥미를 따라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영역이 함께 발달할 수 있는 통합적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발달은 인지·언어·신체·사회·정서가 서로 맞물려 함께 발달합니다. 친구와 블록을 쌓는 단순한 놀이 하나에도 공간 지각력(인지), 함께 의논하는 의사소통 능력(언어, 사회), 눈과 손의 협응 능력(신체), 차례를 기다리고 양보하는 태도(사회·정서)가 동시에 발달합니다. 따라서 영유아기 교육은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 안에 여러 발달 영역이 통합적으로 녹아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활동이 바로 놀이입니다. 놀이는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 자신의 흥미와 호기심에서 출발하며(흥미),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진행되며(발달 적합성), 여러 발달 영역이 모두 통합적으로 포함되는(통합)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영유아 사교육경감 '전문가에게 묻고 듣다' #2

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방식은 놀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사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도 유아에게는 놀이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놀이 중심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흔히 특정 프로그램이나 학원에서는 '놀이식'으로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것은 놀이'식' 이지 진짜 놀이가 아닙니다. 놀이의 겉모습, 틀만 쓴 것이지 진짜 놀이는 아닙니다. 진짜 놀이란 놀면서 저절로, 의식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는데, 지식을 놀이의 탈로 입힌 것은 겉만 달콤하게 바른 것이죠. 놀이가 아니라 학습을 놀이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색감과 그림으로 묘사되었다 하더라도 학습지 풀기 좋아하는 영유아는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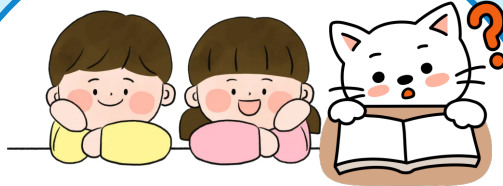
사교육 기관에서 말하는 '놀이식'의 교육과 '진짜 놀이'는 다르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가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장기적으로 아이의 학습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가정이 해야 할 일은 역설적이게도 사교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토대와 자기조절 능력을 단단히 다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소아정신의학과의 한 교수님은 4~7세를 '사춘기의 예고편'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시기에 자기조절 능력과 정서적 안정이 충분히 자라난 아이는 청소년기에 찾아오는 거센 변화와 학업 압박, 또래 관계의 갈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압박과 실패만 경험한 아이는, 겉으로는 잘 적응한 듯 보이다가 청소년기에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모가 영유아기에 길러주어야 할 진짜 자산은 한글과 영어 실력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긴 인생을 견뎌낼 정서적 근육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만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좋아하는 것은 오래 하게 되고 오래 하면 그 안에서 지적 자극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선택해서 집중하는 경험이 쌓이게 되면 결국 학습능력도 발달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부모 자신의 양육 철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회적 압박과 불안에 휩쓸리는 양육이 되지 않으려면, 자녀의 발달과 행복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자녀만이 지닌 특성을 존중하고 그 특성을 장점으로 살려서 키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습능력 발달을 위해서는 유아기에는 정서적 토대를 마련해줌으로써 자기조절능력을 다지게 해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인 거군요. 그럼 부모님과 의상호작용도 자녀의 학습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영유아 사교육경감 '전문가에게 묻고 듣다' #2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학습능력 발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장기 연구에 따르면, 아이의 이후 학업 성취를 가장 잘 예측한 것은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와 어떤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였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노래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숫자와 글자를 접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같은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사교육보다 강력한 학습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과 매월 서점에 가서 좋아하는 책을 고르고 함께 읽었던 경험이 일생 책과 공부를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두뇌 발달의 토대**가 됩니다. 아이가 웅얼이로, 표정으로,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면 양육자가 즉각 따뜻하게 반응해 주는 그 일상의 짧은 순간들이 쌓여 유아 뇌의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만약 이 주고받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사교육을 시켜도 학습의 토대가 되는 신경회로 자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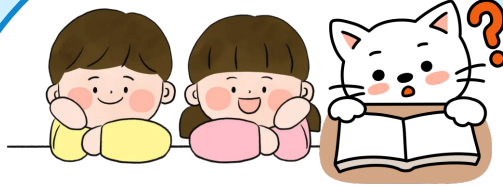
또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언어와 사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모와 나눈 대화는 아이의 머릿속 사고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와 나누는 대화의 양과 질은 어휘력·이해력·추론 능력의 직접적인 토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정서 조절과 자기조절 능력의 토대**가 됩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현재 마음,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게 어떤 마음인지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화가 났을 때 부모와 함께 이러한 감정을 다루는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점차 스스로 화를 가라앉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점차 좌절을 견디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진짜 '공부하는 뇌'의 토대가 되는 자기조절 능력은 바로 이런 일상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자녀와의 상호작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 발짝만 도와주는 놀이**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부모가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와 같은 열린 질문을 던지면, 아이의 사고가 한 단계씩 자랍니다. 이것이 **진짜 의미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으로, **함께 대화하며 책 읽기**입니다. 부모가 책을 일방적으로 읽어주는 대신 "이 친구는 왜 이런 표정일까?",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아?"하고 물어보고, 아이의 대답을 한 번 더 확장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유아의 어휘력, 이해력, 표현력 발달에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경감 '전문가에게 묻고 듣다' #2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부모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부모의 정서는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아이는 부모의 표정, 말투, 분위기를 통해 부모의 감정 상태를 민감하게 읽어내고, 그 안정감 또는 불안감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며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정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부모가 먼저 자기 마음을 살피고 안정될 때, 아이도 비로소 안정된 토대 위에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경남의 유아들이 발달에 맞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아 사교육에 대한 고견을 학부모님들께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유아 사교육 경감 보호자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녀의 놀이와 상호작용을 격려할 수 있는 '자녀와 함께 하는 똑똑 놀이 챌린지', 우리 지역에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자원들을 소개하는 '우리 마을 배움 놀이터' 등을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유아기에 적합한 교육 방법인 '진짜 놀이'로 우리 아이들이 평생의 좋은 학습 습관을 갖게 되길 바라며, 이후 경남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유아 사교육 경감 보호자 인식 개선 사업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인터뷰를 지켜봐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함께 키우는 아이, 사교육 걱정 없는 유치원"을 응원합니다.

